

짓는다. 두 번째 논거는 신이 지닌 최고[최대/최종]의 완전성에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자이기 때문에 당함(pati)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몸-실체[=몸을 속성으로 지닌 실체]는 나누일 수 있기 때문에, 당함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몸-실체는 신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것들이 내가 이 저자들한테서 발견하는 논거들이며, 그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몸-실체가 신의 본성에 가당치 않으며 거기에 속할 수도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애쓴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가 제대로 집중한다면, 그는 내가 이것들에 대해 이미 답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거들은 몸-실체가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내가 이미 (정리 12와 정리 13의 따름정리) 부조리함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만일 누군가가 그 사안을 정확히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공간상에] 펼쳐진 실체는 유한하다는 것을 결론짓는 데에 쓰이는 이 모든 부조리한 논거들이 (모두 부조리하기 때문에 |[36] 이에 관해 더 이상 말다투지 않는다.) 결코 무한량을 가정하는 것으로부터 귀결되지 않음을 그는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측정 가능하고 유한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무한량을 가정하는

Secundum argumentum petitur etiam a summa Dei perfectione. Deus enim, inquit, cum sit ens summe perfectum, pati non potest: atqui substantia corporea, quandoquidem divisibilis est, pati potest; sequitur ergo ipsam ad Dei essentiam non pertinere. Haec* sunt, quae apud scriptores invenio argumenta, quibus ostendere conantur substantiam corpoream divina natura indignam esse nec ad eandem posse pertinere. Verumenimvero, si quis recte attendat, me ad haec jam respondisse comperiet; quandoquidem haec argumenta in eo tantum fundantur, quod substantiam corpoream ex partibus componi supponunt, quod jam (prop. 12. cum coroll. prop. 13.) absurdum esse ostendi. Deinde, si quis rem recte perpendere velit, videbit omnia illa absurda (siquidem omnia absurda sunt, de | quo jam non disputo), ex quibus concludere volunt substantiam extensam finitam esse, minime ex eo sequi, quod quantitas infinita supponatur, sed quod quantitatem infinitam mensurabilem et ex partibus finitis conflari supponunt; quare ex absurdis, quae inde sequuntur,

것으로부터 귀결된다. 따라서 그들은 여기서 귀결된 부조리한 것들로부터 무한량은 측정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유한한 부분들로 합성될 수 없다는 것만을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 (정리 12 등) 이미 증명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겨누는 창은 사실상 본인들을 향해 던져진 썸이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 자신이 자신들의 이 부조리한 것으로부터 ‘[공간상에] 펼쳐진 실체는 유한해야만 한다’고 결론짓고 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은 놀랍게도 누군가가 ‘원은 사각형의 속성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어낸 것으로부터 ‘원이 중심—이로부터 원주까지 그어진 모든 직선은 같다—을 지니지 않는다’를 결론짓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즉 몸-실체는 오로지 무한하고, 오로지 하나뿐이며, 오로지 나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 8, 정리 5, 정리 12를 보라), ‘그것은 유한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그것은 유한한 부분들로 합성되어 있고 여럿이며 나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선은 점들로 합성된다’고 지어내고 나서 ‘선은 무한하게 나뉘지 않는다’를 입증하는 데에 쓰이는 많은 논거들을 고안할 줄 안다. 또한 ‘몸-실체는 몸들이

nihil aliud concludere possunt, quam quod quantitas infinita non sit mensurabilis et quod ex partibus finitis conflari non possit. Atque hoc idem est, quod nos supra (prop. 12. etc.) jam demonstravimus. Quare telum, quod in nos intendunt, in se ipsos revera conjiciunt. Si igitur ipsi ex suo hoc absurdo concludere tamen volunt substantiam extensam debere esse finitam, nihil aliud hercle faciunt, quam si quis ex eo, quod finxit circulum quadrati proprietates habere, concludit circulum non habere centrum, ex quo omnes ad circumferentiam ductae lineae sunt aequales. Nam substantiam corpoream, quae non nisi infinita, non nisi unica et non nisi indivisibilis potest concipi (vid. prop. 8., 5. et 12.), eam ipsi ad concludendum, eandem esse finitam, ex partibus finitis conflari et multiplicem esse et divisibilem concipiunt.

Sic etiam alii, postquam fingunt lineam ex punctis componi, multa sciunt invenire argumenta, quibus ostendant lineam non posse in infinitum dividi. Et profecto, non minus absurdum est ponere, quod

나 부분들로 합성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몸은 면들로, 면들은 선들로, 마지막으로 선들은 점들로 합성된다'고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부조리하다. 그런데 이 점은, 밝은 이성은 실수하지 않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진공이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만약 몸-실체가 나뉘어서 그것의 부분들이 실제로 구별된다면,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전처럼 서로 연결된 채로 남겨져 있는 동안, 그 한 부분이 소멸하지 않을 까닭이 있을까? 또한 모든 부분들이 짝 들어맞아서 진공이 존재하지 않을 까닭이 있을까?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되는 사물들(res)은 정말이지 하나가 다른 것들 없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 안에는 진공이 없고(이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오히려 모든 부분들이 진공이 없도록 협력해야만 한다. 이로부터 귀결되는바 이것들 또한 서로 실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몸-실체는 그것이 실체인 한에서 나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이제 누군가가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분량을 나누려는 경향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다. 우리는 양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식한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상상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으로[=물질을 슈아넨 채

substantia corporea ex corporibus sive partibus componatur, quam quod corpus ex superficiebus, superficies ex lineis, lineae denique ex punctis componantur. Atque hoc omnes, qui claram rationem infallibilem esse sciunt, fateri debent, et imprimis ii, qui negant dari vacuum. Nam si substantia corporea ita posset dividi, ut ejus partes realiter distinctae essent; cur ergo una pars non posset annihilari, manentibus reliquis ut ante inter se connexis? Et cur omnes ita aptari debent, ne detur vacuum? Sane rerum, quae | realiter ab invicem distinctae sunt, una sine alia esse et in suo statu manere potest. Cum igitur vacuum in natura non detur (de quo alias), sed omnes partes ita concurrere debent, ne detur vacuum, sequitur hinc etiam easdem non posse realiter distingui, hoc est substantiam corpoream, quatenus substantia est, non posse dividi.

Si* quis tamen jam quaerat, cur nos ex natura ita propensi simus ad dividendam quantitatem, ei respondeo, quod quantitas duobus modis a nobis concipitur, abstracte scilicet sive superficialiter, prout

로], 다시 말해 피상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실체로서 [인식하는데], 이는 지성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가 분량을 상상력 안에 두고—이는 우리가 자주 하고 또 비교적 쉽다—집중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유한하고 나뉠 수 있고 부분들로 합성된 것으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지성 안에 두고 집중한다면, 또한 그것을 그것이 실체인 한에서—이는 우리가 하기에 대단히 어렵다—인식한다면, 우리가 이미 충분히 증명한 바대로 우리는 그것을 무한하고 유일하며 나뉠 수 없는 것으로 깨달을 것이다.

이는 상상력과 지성 사이를 구분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명백할 것이다. 특히, 물질(materia)은 어디서든 똑같다는 점, 우리가 ‘물질은 다양한 양태로(versimode) 변용된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것 안에서 부분들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따라서 그것의 부분들은 양태적으로 구분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할 때 그러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이 그것이 물인 한에서 나뉠 수 있고 그것의 부분들이 서로 분리된다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이 몸-실체인 한에서는 아니다. 말하자면 그런 한에서 물은 분리되지도 나뉘지도 않는다. 나아가 물은 그것이 물인 한에서 만들

nempe ipsam* imaginamur, vel ut substantia, quod a solo intellectu* fit. Si itaque ad quantitatem attendimus, prout in imaginatione est, quod saepe et facilius a nobis fit, reperietur finita, divisibilis et ex partibus conflata; si autem ad ipsam, prout in intellectu est, attendimus et eam, quatenus substantia est, concipimus, quod difficillime fit, tum, ut jam satis demonstravimus, infinita, unica et indivisibilis reperietur.

Quod* omnibus, qui inter imaginationem et intellectum distinguere sciverint, satis manifestum erit; praecipue si ad hoc etiam attendatur, quod materia ubique eadem est nec partes in eadem distinguuntur, nisi quatenus materiam diversimode affectam esse concipimus, unde ejus partes modaliter tantum distinguuntur, non autem realiter. Ex. gr. aquam, quatenus aqua est, dividi concipimus ejusque partes ab invicem separari; at non, quatenus substantia est corporea; eatenus enim neque separatur, neque dividitur. Porro aqua, quatenus aqua, generatur et corrumpitur; at, quatenus

어지고 썩는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인 한에서는 만들어지지도 썩지도 않는다.

그런데 이로써 나는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또한 바탕을 두고 있는 곳이 물질은 그것이 실체인 한에서 나뉠 수 있고 부분들로 합성된다는 점이 때문이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질이 신의 본성에 가당치 않는 까닭을 나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리 14에 따라) 신의 본성은 실체에 의해서 작용을 입는데, 이러한 실체는 신 이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리건대 모든 것은 신에 속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의 무한한 본성의 법칙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며, (내가 곧 보여주겠지만) 신의 본질의 필연성으로부터 귀결된다. 이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도 신이 다른 것으로부터 작용을 입는다고, 또는 [공간상] 펼쳐진 실체는 신의 본성에 가당치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하고 무한하다고 인정되는 한, 설령 그것이 나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것들에 관해서 충분하다.

[정리 16으로 이어짐]

substantia, nec generatur, nec corrumpitur.

Atque* his me ad secundum argumentum etiam respondisse puto; quandoquidem id in eo etiam fundatur, quod materia, quatenus substantia, divisibilis sit et ex partibus conflatur. Et quamvis hoc non esset, nescio, cur divina natura indigna esset; quandoquidem (per prop. 14.) extra Deum nulla substantia dari potest, a qua ipsa pateretur. Omnia, inquam, in Deo sunt et omnia, quae fiunt, per solas leges infinitae Dei naturae fiunt et ex necessitate ejus essentiae (ut mox ostendam) sequuntur; quare nulla ratione dici potest Deum ab alio pati aut substantiam extensam divina natura indignam esse; tametsi divisibilis supponatur, dummodo aeterna et infinita concedatur. Sed de his impraesentiarum satis.